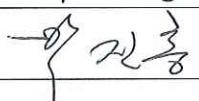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회 의 록		위 원 장	학 교 장
일 시	2019. 11. 28.(목) 11:00~	장 소	교장실
참석위원	김○○, 이○○, 이○○, 곽○○, 조○○, 기○○, 오○○, 박○○, 라○○, 신○○, 백○○, 안○○, 오○○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결과건 2020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획(안) 2019학년도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 운영계획(안) 2019학년도 교지 노송원 제62호 발행 계획(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선정(안)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안)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 의 진 행 내 용			
발언자	발언 내용		
	<p>지금부터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2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p> <p>안녕하십니까? 교장 ○○○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p> <p>제가 9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전주고의 명성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인의 의인비 제막식이 정문 옆에서 거행되었고요. 동창회라든가 운영위원회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신 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정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4일 날 수능 성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수 분석을 잘해서 정시 진학지도를 잘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3학년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보다는 유독 의대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현재 3학년 체제로 들어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자율학습을 시작했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1,2학년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p> <p>농구부와 야구부는 전국체전 1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내일부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동계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p> <p>시설분야에서는 방학 중에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야구부나 농구부 체력역량강화실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p>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고가 발전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및 개의선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정문 바로 옆에 의인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역대 전고 출신의 동문들도 오시고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전주고등학교에 기념비적인 불거리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구요. 저도 좀 추운 날씨지만 참석해서 우리 전북애향본부 ○○○님까지 연로하신데도 참석하셨던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위원님들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더욱 더 챙기십시오. 본인건강과 가족건강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임기가. 이제 그 임기 마치는 동안 아이들을 똑같이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 위원님들의 뜻과 영향이 마지막까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하고 당부 말씀 드리면서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2회 임시회의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기록을 위하여 회의 내용을 녹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9일에 개최한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제1회 임시회에선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학칙 개정(안), 동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안)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임시회 회의결과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학칙 개정(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되어 현재까지 심의된 내용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2020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결과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안 설명은 ○○○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결과입니다. 이미 추천을 했고요. 추천한 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과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목적 세 가지 있고요. 방침은 우리 전주고등학교 학교장 추천하는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조 추천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추천절차를 보면 대상자는 일단 학급 담임교사가 추천을 하구요. 그 다음에 학급 담임 교사는 추천 대상 학생에 관한 일체의 점수의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대상학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구요. 교장선생님은 필요시 최종 추천 대상을 결정하기 전에 추천 대상학생을 면접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무래도 입시에 많은 경험이 계시니까 이 정도는 힘들겠는데 하시면 재심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 해당 추천 대상자, 이 인원 이하인 경우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6조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 선정 기준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정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3학년 담임협의회를 거쳐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대개 교장선생님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교장선생님께서는 존중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 1순위 희망자 그 다음에 2순위 지원 대학의 수시 모집 서열이 상위권인 자, 3순위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이 상위인자, 4,5,6순위는 학교장 추천전형이 수도권 대학이 많기 때문에 기타 이제 저희가 창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권 학생들은 창체활동이 대개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성적 기준으로해서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장 추천 실시 학교 현황입니다. DGIST라고 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인데요, 학교당 1명이구요, 육군사관학교 3명, 해군사관학교 2명, 건국대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서울대 있고요, 고려대학있구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친구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 국민대, 동국대, 경희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제가 요 대학들 학교장 추천전형 심사 대상자 명단을 첨부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학교가 학교장 추천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는 심사 대상 명단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그 다음 실제 내용을 보면 사관학교 추천전형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요. 육군사관학교에 실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학생과 ○○○이었는데 합격

자는 ○○○이었습니다. 합격을 하고 지원은 안하기로 하였답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 7월 24일에 봤는데 대개 모의고사 보는 형식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도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 학생은 그럼 추천대상자가 아니었습니까?

네. 본인이 일반전형으로 지원한 것인데요. 이 친구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 같은 경우는 264점으로 후보 38번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마음이 변해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 학생도 본인이 모의고사 식으로 본것이라 하였고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 학생이 합격은 했는데 본인이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 학생이 합격했는데 가지 않았고요. ○○○ 학생은 점수가 좀 낮았지만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 인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후보학생들까지도 생도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는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에서는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전형 대상자 명단을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내일이 면접입니다. 지역인재전형 2명의 친구가 면접 준비 중이고 오늘 오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경제학과 1명, 건축학과 1명입니다. 두 친구 모두 내신이 좀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가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12개 반 가운데 상당히 오랫동안 인문계열이 강세였다고 하지만 요즘은 자연계열로 많이 기울다 보니까 자연계열이 8개 반, 문과반이 4개 반인데 우리학교같은 경우 국어하고 영어성적을 같이 산출합니다. 12개 반이. 그러다보니 우수한 학생이 자연계열에 모여 있고 인문계열은 내신이 좀 안좋구요. 자연계열도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학교보다는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내신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의대를 희망합니다. 서울대에 지원 한 두 명은 면접 결과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5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추천했고요. 이 가운데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는 9명 가운데 최저등급과 면접단계까지 거쳐야 합니다. 최종결과는 12월 10일에 나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친구만 작업을 합니다. 이 친구는 내신이 낮지만 일단은 연세대에 1단계는 합격하여 면접을 다녀왔고요. 카이스트에 추천한 이 친구는 떨어졌지만 서울대는 합격하여 면접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GIST에 지원한 친구는 내신이 조금 낮았는지 탈락하였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와 일반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 친구들은 네 명이 최종합격하였는데 나머지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쓰긴 썼는데 내신이 조금 낮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과감하게 도전하였지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추천 협의록 첨부하였습니다. 혹시 진학결과와 진학지도과정에 질문 있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 설명 해주신 ○○○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천을 한 학교 말고 두학교 이상도 가능합니까?

1인당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추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제한을 하다보면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가다보면 좋은 학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른 학교는 두 개 세 개 쓰는데 우리학교가 하나밖에 못쓰면 서열명부가 자꾸 낮아지니까 경쟁력이 약해져 세 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로 했다가 두 군데가 돼서 안가는 경우 대학교 측에서 제재는 없습니까?

네. 제재는 없고 제가 알고계시는 사정관님이면 양해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AIST나 GIST같은 경우에는 추천인원이 두 명인데 전주고등학교에서 한 명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조건은 없었고요. 희망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의대, 치대, 한의대가 진출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라 우수학생들이 의생명과학쪽으로 굉장히 많이 쓸리는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와 재청을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제1안 2020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결과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에 앞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교복이 작년하고 사양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계획서를 바로 보시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의 추진 절차는 1페이지 네모 박스에 있습니다.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하게 되어있는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교복구매 계획 수립은 수립(안)은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확정지어서 내부결재

문서로 올릴 예정입니다. 교복선정위를 구성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학부모 위원님들께서 다 위원으로 구성이 되셨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절차가 지금 여기 단계인데요. 여기서 심의가 통과되면 입찰 공고를 하게 되고 2단계 입찰로 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회를 듣고 선정위에서 정성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네모박스에 있는 번호대로 세부 순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걸쳐있는 교복 기준 역시 작년, 재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라 항목을 보시면 교복선정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내부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 담당 선생님께서 동의를 구해주셨고요. 저는 진행관리를 하고 ○○○선생님은 미술담당 교사로서 학생부 선생님이십니다. 역시 학생회장도 참석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야 할 부분은 새롭게 나눠드린 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수정을 한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량적평가중에 2번 경영상태 부분입니다. 실제 우편으로 받아보신 문서를 보시면 2번 밑에 2-1과 2-2가 있는데 이것이 계산하는데 혼동이 있어 경영상태가 15점 만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2-1이 10점 2-2가 5점 이런식으로해서 이 표에 있는 점수기준은 10점짜리 하나 5점짜리 하나 이렇게 가구요. 그리고 경영 상태를 평가할 때 재무평가로하면 이 10페이지 표로가게 되고 신용평가로 대신해서 선택하는 경우 12페이지에 있는 그 평가표로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총점이 15점으로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신용평가표도 총점을 15점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작년 일상감사때 지적된 권고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원본을 보시면 정량 평가 중에 수행경험이 20점 만점인데 급간이 3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상감사때 급간이 3점이면 신생업체들은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급간을 줄이는 게 어떠냐고 했기 때문에 2점으로 줄이는 것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수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밑을 보시면 주2에 경영상태쪽에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가 바뀌면서 평가지표에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획서를 낼 때 반영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반영하였습니다. 예시에 보시면 유동비율, 기준비율이 나오는데요. 기준비율분에 유동비율에서 기준비율의 퍼센트가 조금 바뀌어서 숫자가 조금 수정된 부분을 현행 규칙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10페이지와 12페이지 설명을 마치도록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참조서식 부분이나 교복사양서는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재작년부터 단위학교의 계획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절차를 가지시는거죠?

여기서 가결되면 입찰공고를 하게 되고 입찰공고가 끝나는 시점에 교복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의 재청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안 2019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제3안 2019학년도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목적으로는 학교에서는 동절기에 혹한과 설비부족으로 운동장 사정이 좋지 못하므로 훈련일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조잔디 운동장 및 실내연습장과 웨이트장을 갖춘 함평야구장을 택하여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훈련장과 숙소의 거리는 2km 정도 되어서 조깅이나 러닝으로 이동가능하며 숙소에 조리시설이 완비되어있어 조식과 석식을 이동 없이 할 수 있어 취침 및 훈련 시간을 약 2시간 정도 증진시킬 수 있고 중식은 훈련장내에서 완비되어 훈련장에서 중식이 가능하므로 또한 훈련시간을 1시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전지훈련기간은 12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36박 37일이며 참여인원은 선수 49명, 신입생 20명, 1학년 14명, 2학년 15명, 코칭스탭은 감독을 포함한 코치 4명해서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명 정도가 재활에 임해야 될 것 같기에 인원은 조금 지켜봐서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단은 버스 왕복 1회에 숙식장소와 훈련장소가 멀지 않아 차량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현지교통비 72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을 제외한 선수와 코치3명에 대한 소요경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지출은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사기간은 11월 9일 학부모 대표 3명이서 1차 답사를 하였고요. 12월 15일 감독 1명, 학부모 대표 3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답사장소 및 내용으로는 함평야구장, 숙소, 식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p>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어느 해 못지않게 성적도 좋았고 1차 선발도 우승하였고 고생하셨습니다. 학부형들 동의서 잘 챙겨서 동계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p>
	<p>여기가 기아타이거즈 구장인가요?</p>
	<p>아닙니다. 함평에 있는데요. 속박, 식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겸비가 되어있어 훈련이 용이합니다.</p>
	<p>훈련장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p>
	<p>함평체육회입니다.</p>
	<p>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의견없음을표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 재청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안 2019학년도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p>
	<p>다음은 제4안 2019학년도 교지 노송원 제62호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건 제안 설명은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p>
	<p>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교지 노송원 제 63호 발행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내용을 보시면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교지를 7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희망용은 1,2학년은 조사 끝에 200부정도였고 3학년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보관용 10부, 대외홍보용 20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격과 예정면수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지비용이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이건 인쇄소 사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9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p>
	<p>단가가 많이 올랐네요?</p>
	<p>네.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실은 작년부터 10% 인상이 진행되었어야하는데 작년에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꺼 대비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인쇄비나 인력비를 비교해봤을 때 많이 오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다른 질문 사항있으십니까?</p>
	<p>수요자부담 금액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건가요?</p>
	<p>저희가 전체가격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견반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p>
	<p>학생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희망자를 먼저 받고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학교에서 절반을 지원해줍니다.</p>

	<p>학생들이 흔쾌히 동의해주는 겁니까?</p> <p>네.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p>
	<p>책은 언제쯤 나오나요?</p> <p>완전히 나오려면 1월 말 정도로 예상됩니다.</p>
	<p>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 재청 받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p> <p>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안 2019학년도 교지 노송원 제 63호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다음 안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선정(안)을 상정합니다.</p> <p><의사봉 3타></p> <p>제안 설명은 ○○○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p>
	<p>2020학년도 교육과정은 2015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되어서 교과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심의안건 내용으로 심화수학, 철학, 심리학, 생태와 환경, 환경은 새로 구축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이 필요했습니다.</p> <p>1책인 심화수학, 철학, 심리학, 생태와 환경은 교과서 선정 협의회가 아닌 교사 추천제로 진행이 되고요. 환경은 2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쳐 선정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p>
	<p>실질적으로 2015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학생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심화수학부터 생태와 환경은 책이 단권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환경 부분만 책이 2종이기 때문에 관련 선생님들과 협의를 거쳐 둘 중에 한권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생님의 결정을 심의해주신다면 이 책으로 저희가 주문을 할까 합니다.</p>
	<p>학급당 12명과 학생부장, 교장 선생님 또는 저를 포함하고 특수학급 선생님과 행정실 1명, 예비로 1명을 포함한 인원이고 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학교에서 지급이 됩니다.</p>
	<p>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p> <p>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 재청 받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p> <p>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선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저희가 추가 안건이 하나 있는데요.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국사가 다른 교과서만 전시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배포 자체가 12월 5일 날 진행이 되어서 전시한 다음에 교육과정 교과협의회를 진행한 다음에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할까 합니다.</p>

	<p>학교교과협의회가 공정하게 통과시킨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의를 먼저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p>
	<p>한국사도 미리 교재가 나왔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국정이었지만 지금은 검인정으로 바뀌어서 교재가 7종정도 심의본이 나왔는데 저희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한국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그중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 그 부분의 결정을 믿고 수용해주신다면 안건으로 오늘 처리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p>
	<p>그 부분은 교과선정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p> <p>한국사 관련 교과 선정은 교과선정위원회에 선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p>
	<p>다음은 2019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안건 제안 설명은 ○○○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p>
	<p>안녕하십니까, 학교발전기금 담당 ○○○주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p> <p>2019학년도 제1차 임시회의 이후 수입된 학교발전기금이 5천1백3십9만7천원입니다. 운동부지원으로 기탁된 3백만 원과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지원금 5십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장학금으로 기탁되었습니다.</p> <p>다음 페이지 운영계획을 보시면 장학금으로 4천7백8십9만7천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서암윤세영장학재단, KT&G장학재단, 연강재단, 노송법조 장학금은 외부에서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운동부지원으로 기탁된 3백만 원은 추후 동계훈련시 격려금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유네스코 동아리 지원금은 동아리 활동이 있을 시 담당선생님과 상의 후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입니다. 나머지 학생장학금으로 들어온 11건의 장학금은 세부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멘토장학금 및 성적우수학생 및 취약계층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p>
	<p>혹시 장학금 전부다 성적우수학생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p>
	<p>신입생 성적우수학생장학금, 기숙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장학금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장학금을 선정하여 진행되는데 그 기준에 성적이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성적우수장학생만 장학금을 받는 건지 취약계층도 장학금을 받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가요?</p>
	<p>대부분 동문 분들이 기탁해주실 때 목적이나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그 기준에</p>

맞게 집행을 하는데요. 성적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취약계층,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임실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기탁자가 목적을 성적우수학생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계획을 세워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성적이 높지 않아도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총동창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안건에 올라온 내용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매달 기탁을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일시에 기탁을 하시는데 제1차 임시회의 이후 총동창회에서 기탁한 금액은 없고 10개기수 체육대회에서 3백만 원, 5백만 원, 66회에서 1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른의견없음을 표시> 동의재청 받겠습니다.<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안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건 제안 설명은 ○○○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입니다.

나눠드린 요약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학교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이전수입, 국고보조금에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3분기 금액입니다. 9십5만4천원이 예상되었고요, 학교운영비전입금, 학생증가로 인하여 9백6십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래 교특 본예산에 천백일명이 대상이 되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천백이십 명으로 19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기간제 교원 퇴직금등 41건이 10억 4백1십7만 4천 원이 교부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요. 기타 이전수입, 발전기금 전입금, 기타 지원금, 교육실습생지원금 외 7건 방송통신고전입금으로 4천4백1십3만 3천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학부모부담 수입을 보시면 수익자부담경비 종료사업을 정리추경을 실시하였는데요. 실집행액과 예상액을 일치시키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 행정활동 수입으로 학교시설사용료 와 예금이자가 증대되어서 5백6십2만 6천 원을 계산하였고 총9억6천8백8십2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보시면 목적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세입 대비 세출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기타 이전수입도 11건, 농구부, 야구부 장학금이 발전기금 전입금이거든요 8백3십2만 8천 원이 편성이 되었고, 교육실습생지원금이 6십만 원,

수능모의평가대강료 7백만 5천 원, 농구부지원금 9백6십만 원, 야구부지원금 1천1백6십만 원, 방송통신고전기요금응로 타학교 전입금으로 들어온 7백만원을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경비 정리추경 세출부분에서도 동일하게 9천5백7십3만 4천 원이 조정되었고요. 내역을 보시면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3학년 방과후학교교육비, 우유급식비, 아까 제안설명드린 야구부전지훈련비까지 수익자부담에 정리하였습니다.

예산항목간 가감조정이 있었는데요. 교직원연수경비 등 39개 항목 감조정되었고, 교내수선비 등 37개 항목이 증조정 되었습니다. 합계 9억6천8백8십2만2천 원으로 세입대비 세출 동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자부담경비 정리추경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주로 교과서비나 수학여행, 졸업앨범등은 계약이 이미 확정이 되 가지고 집행이 된 금액대로 원래 집행대비 예산액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가 좀 허수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데서 봤을 때 우리학교 예산이 원래는 10억인데 허수로 11억, 12억 이렇게 보일수가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실집행액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았는데 그 차이가 거의 1억에 가까운데 1년간 우리학교 학생 숫자를 대비해보면 인당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목적사업비, 즉 교육청에서 학교회계로 내려오는 부분이야 감사도 받고 재차 감사도 받고 해서 상관이 없겠지만 수익자부담, 즉 학부모가 내는 경비부분에 있어서 이런 오차수치가 크다는 건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의 한 거구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허수가 적을 수 있게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수익자 부담예산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학생들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나오고 시장조사가격이 좀 나와 줘서 단가대로 저희가 예산을 실집행금액이랑 비슷하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허수가 없이 세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허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놓지 않으면 안되는 거 알아요. 실집행액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 참고적으로 아이들의 수학여행, 졸업앨범과 관련해서 그 차이가 1억 가까이 된다는 건 좀 크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제 기억으로는 3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차후에 예산 세울 때는 계획수립 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른의견없음을 표

시> 동의재청 받겠습니다.<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안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8안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안 설명은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실 주무관 ○○○입니다.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2019학년도 학급수 감소, 5학급을 예정으로 했었는데 실제 1학년이 1학급만 편성되면서 4학급으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도 175명을 예정했었는데 현재 학생수가 110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학급수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방통고 운영지원비가 1천1백3십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교육비지원 목적사업비들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9천7백6십4만 원에서 9백3십만 7천 원이 감액된 8천8백3십3만 3천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고 운영지원비가 학급수 감소에 따라 1천1백3십3만 6천 원이 감교부되었고 이에 맞춰서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에서 앞으로 집행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안해서 맞춰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른의견없음을 표시> 동의재청 받겠습니다.<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안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동안에 화장실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방과 후 수업 예정이 원래는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로 계획했는데 초반이게 원래 본관쪽을 전체 다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아이들 교육과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3월 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전 공사가 끝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편의도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1학년하고 2학년 수업은, 현재 2학년들이 본관 쪽에 있는데 방학 때는 방과 후 수업을 후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관을 비워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본관을 3학년이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중입니다.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인데 본관 쪽에 도서관에서 자율학습하기도 동선이 가깝고 후관 쪽에 1학년과 2학년을 배정하여 노송서관을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동창회에서 노송서관을 4층으로 올리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하고 2층, 3층까지 있는데 4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에 전혀 공부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기본 화장실, 이런 부분은 2월안에 마무리 짓게 하고 공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구부는 동계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농구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훈련하러 나갈 때는 다른 학교에서 경기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야구부는 장소를 통째로 옮기는 거고 농구부는 교내에서 훈련을 하다가 경기를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 전지훈련을 해외로도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전주고는 계획에 없었습니까?

공문에 해외전지훈련을 지양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고창영성고가 야구부가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 야구 같은 경우는 전주고와 군산상고, 인상고 이 세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예선을 해서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 2차 예선을 하는데 2차 예선에서 우리가 우승을 하면 3번째 최종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2등을 하면 1차 1등 2차 1등이 최종전을 합니다.

가능한 한 체전에 참가하여야 하는 게 훈련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구부 같은 경우도 훈련을 나가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야구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전망도 좋습니다. 농구도 현재 지금 올해팀원들이 작년보다 훨씬 멤버가 좋고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데도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심의해주셔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록자: 이동주 (인)